

46. 순종과 결실

신앙고백

찬 송 : “새벽부터 우리” (찬송가 496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누가복음 19:12-17

말씀묵상

오늘 본문은 ‘어떤 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이 귀인은 왕위를 물려받고 다시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존귀하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다가 한 므나씩 나누어주며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이에 종들의 반응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귀인은 이제 왕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1. 각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귀인이 종들에게 한 ‘므나’씩 나누어주었습니다. 므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화폐단위로 한 므나는 그 당시 100일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꽤나 큰 액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없이 ‘시간과 재능’이라는 므나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활용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2. 결산하시는 때가 옵니다.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귀인이 다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 므나를 그동안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물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3. 칭찬과 책망의 기준

한 므나를 받아서 열 므나를 남긴 종과 다섯 므나를 남긴 종은 귀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들은 귀인의 말에 순종하여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함으로써 이익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므나를 그대로 가져온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는 귀인의 말에 불순종하여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맺는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므나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게 맡겨주신 므나가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여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적용

1. 한 주간 나의 재능과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돌아봅시다.
2. 누가복음 19장 17절을 암송합니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캄보디아 선교(임만호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2. 대림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노력합니다.

3. 성경통독 강해

임창세목사의 성경통독강해를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주일은 제외)

4. 코로나 2단계 방역지침

시당국에서 정규예배 이외의 모든 소모임, 회의, 식사 등을 금지하는 지침을 알려왔습니다. 교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코로나 종식과 교회개혁, 예배회복을 위한 기도운동

코로나 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종식과 교회개혁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해서 하루 10분씩 전교인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목장별 전화 및 화상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과 화상심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7. 2021년 부서별 예산안

각 교육부서 및 사역팀, 부서별로 2021년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12월 첫째 주일(6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대상 : 교육부서, 성가대, 찬양팀, 사역팀

8. 2021년 교회요람 준비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가 달라진 분들은 목자 혹은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교우소식

헌물 - 박희군집사, 이해영권사 가정에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부목사 : 양미화 천광우

지 휘 자 : 이영준

교육전도사 : 신새벽

반 주 자 : 홍지혜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The Six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눅 5: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 031)751-7230
www.doonjeon.kr

